

형제자매의 구성과 친구관계, 애착 및 생활만족의 관계

장 휘 숙¹⁾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남: 238명, 여: 223명)과 청소년(남: 238명, 여: 223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 생활만족 및 친구관계의 특성을 연구하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도 함께 연구하였다. 변량분석결과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형제, 오빠-여동생, 및 누나-남동생쌍보다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갈등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매들이 형제와 누나-남동생 및 오빠-여동생쌍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자매와 오빠-여동생쌍이 누나-남동생쌍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며, 자매는 형제와 누나-남동생쌍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매는 친구관계에서도 가장 높은 온정과 가장 낮은 갈등을 보였으나 형제는 가장 낮은 온정과 가장 높은 갈등을 나타내었다. 상관분석을 통하여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이면 친구관계도 온정적이고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이면 친구관계도 갈등적임이 밝혀짐으로써 양자는 이월관계로 확인되었고, 두가지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모두 부정적인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였다.

주요어 : 형제자매의 구성,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애착, 생활만족

1) 교신저자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sjang@cnu.ac.kr)

I. 서 론

형제자매관계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Buhrmester & Furman, 1990). 즉 형제자매들은 서로 막역한 친구가 되고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돕는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이 역경에 처할 때, 그리고 부부가 불화할 때 형제자매는 서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Jenkins, 1992; 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때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주 갈등이 초래된다(장휘숙, 2004; Brody, Stoneman & McCoy, 1994). 그러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는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관계보다 친구관계가 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예: 자기존중감)에도 영향을 주지만, 인터넷 중독이나 폭력과 같은 일탈행동과 또래 괴롭힘같은 부정적 발달과 높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은혜, 고윤주, 2004; 박영신, 김의철, 2004; 성한기, 안경옥, 2005).

그러나 일찍부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이나 본질을 연구한 서구의 연구자들은 형제자매관계가 온정(혹은 친밀성)과 갈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고(장휘숙, 2007; Buhrmester & Furman, 1990; Dunn, Stocker, & Plomin, 1990; McGuire, McHale, & Updegraff, 1996;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온정과 갈등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Lee(1990)는 자매들은 서로 높은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고 온정적인 반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준의 친밀감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Buhrmester와 Furman(1990)은 동성의 형제자매들이 이성의 형제자매들보다 서로에게 더 온정적이라고 보고하였는가 하면 소녀만으로 구성된 형제자매들이 소년을 포함하는 형제자매들보다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연구(Hetherington, 1988)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혜원과 김은지(1997)는 형제간, 자매간, 오빠-여동생으로 구성되는 남매간 및 누나-남동생으로 구성되는 남매간의 네가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가장 온정적이었고 그 다음이 형제간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갈등이나 경쟁은 형제간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누나-남동생쌍이라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구성방식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 외에도 유사한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형제자매관계와 함께 친구관계도 온정과 갈등을 포함하므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친구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Furman & Buhrmester, 1985; Knight & Chao, 1991; McCoy, Brody & Stoneman, 1994; Volling, Youngblade, & Blesky, 1997;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방

식으로 이월모델과 보상모델이 존재한다. 애착이론가들이나 사회학습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이월모델(carryover model)에서는 아동은 가족 내에서 학습한 행동패턴을 기초로 관계형성을 위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그것을 친구관계에 일반화시킨다는 것이다(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8).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유사한 애착관계로서 형제자매에게 공격적인 아동은 친구들에게도 공격적이고(박혜원, 김은지, 1997; Stormshak, Bellanti, & Bierman, 1996),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친구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Lockwood, Kitzmann, & Cohen, 2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상모델(compensation model)은 보상적이고 지원적인 하나의 관계가 다른 부정적 관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형제자매관계가 부정적이면 친구관계는 긍정적이고,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이면 친구관계는 부정적이지만, 양자의 관계 중 부정적 관계는 긍정적 관계에 의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이 완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청년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Gauze 등(1996)과 남녀 대학생들을 연구한 Sherman, Lansford 및 Volling(2006)은 긍정적 친구관계가 부정적 형제자매관계 효과를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상모델을 지지하였고 Stocker(1994)는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갖는 아동들은 두가지 관계 모두 부정적인 아동들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보고하여 역시 보상모델을 지지하였다. East와 Rook(1992)도 친한 친구들로부터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좋아하는 형제자매관계로부터 더 높

은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여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서로 보상관계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Sherman 등(2006)은 긍정적 친구관계는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를 보상하지만,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부정적 친구관계를 보상하지 못한다고 밝혀 보상관계가 양방향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이월모델과 보상모델 중 어느 모델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월과 보상의 관계는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증거로서 적대적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자녀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가하면(Boer, 1990; Brody, Stoneman & McCoy, 1992) 형제자매관계는 비지원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보상한다는 연구들이 있다(Hetherington, 1988; Bank & Kahn, 1982). 만약 부모-아동 관계에 만족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한다면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닐 것이고,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낮은 애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보상적이라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온정적 형제자매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더 낮은 애착을 나타낼 것이다. 더욱이 Sherman, Lansford 및 Volling(2006)은 형제자매 및 동성친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대학생

들이 높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Rowe와 Kahn(1998)도 형제자매관계를 포함하여 따뜻하고 지원적인 사회적 관계는 전생애에 걸쳐 개인의 행복감과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롭게도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중기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개인차가 뚜렷해지는 시기이다(Boer & Dunn, 1992; 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이 시기 동안 어떤 아동들은 형제자매와 애정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어떤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뚜렷한 개인차를 보인다. 청년초기의 청소년들 역시 정체감 형성의 일환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키고 친구나 동년배 집단의 가치에 일치하려고 하므로 친구관계는 물론 형제자매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다. Dunn과 Slomkowski 및 Beardsall(1994)은 청년기 동안 우정이 중요시되고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형성한 유대를 중요시하므로 형제자매관계는 덜 중요해진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수가 많아지면 그들의 상호작용방식이나 역학이 달라지므로 이 연구에서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 차이가 있는지,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친구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양자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자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해야 하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와 2명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진 학생,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학생 및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초등학교 학생 353명(남: 176명, 여: 177명)과 중학교 학생 461명(남: 238명, 여: 223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초등학교 남학생 11.89(SD=.392)세, 초등학교 여학생 11.89(SD=.391)세, 중학교 남학생 14.83 (SD=.474)세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 14.88(SD=.460)세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12월 초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척도

형제자매관계 척도

장휘숙(2007)이 제작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12개의 온정문항(예; 내가 아플 때 형제자매는 내 곁에 있어준다)과 10개의 갈등문항(예;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설계되어 있다. 온정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Cronbach α 알파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온정 하위척도 .920 그리고 갈등 하위척도 .894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또래관계 척도

형제자매관계 질문문항에 형제자매라는 단어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또래관계 질문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온정과 갈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이므로 Carbery와 Buhrmester(1998) 혹은 Sherman, Lansford 및 Volling(2006)같은 연구자들도 형제자매관계와 또래관계를 동일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12개의 온정 문항(예: 나는 내 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과 10개의 갈등문항(예: 나는 내 친구에게 지는 것이 싫다)을 포함하는 22개의 질문문항은 형제자매관계에서와 동일하게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관계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관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온정 하위척도 .893 그리고 갈등 하위척도 .816으로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원래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aterson, Field 및 Pryor(1995)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여 3인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IPPA는 신뢰와 의사소통 및 소외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Paterson 등이 사용한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질문문항 중 세 개의 하위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각각 5개씩 추출함으로써 전체 1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의 질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의 합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문항들의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α)는 각각 .892와 .901이었다.

생활만족척도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 척도(K-MSLSS)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이정미와 이양희(2005)가 Huebner(1994)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를 번안·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로서 친구(예: 내 친구들은 내게 친절하다), 학교(예: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가족(예: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다), 환경(예: 나는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자아 만족도(예: 나는 좋은 사람이다)의 5요인을 포함하며 전체 3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곧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K-MSLSS가 9-12세 아동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Greenspoon과 Saklofske(1998)는 3-8학년 아동들에게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사용가능한 척도로 볼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아동에서 .936 그리고 청소년에서 .907이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제자매를 형제, 자매, 오빠-여동생 및 누나-남동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4가지 형제자매 구성의 특성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령과 4가지 형제자매의 구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x4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온정과 갈등의 평균과

표 1.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연령집단	형제자매의 구성	N	온정	갈등
초등학생	형제	88	3.35(.989)	2.53(.786)
	자매	82	3.52(1.011)	2.59(.687)
	오빠-여동생	74	3.11(1.091)	2.46(.732)
	누나-남동생	109	3.28(.944)	2.53(.816)
	전체	353	3.32(1.008)	2.53(.761)
중학생	형제	123	3.18(.842)	2.43(.662)
	자매	80	3.64(.828)	2.62(.707)
	오빠-여동생	118	3.05(.941)	2.45(.716)
	누나-남동생	140	3.09(.889)	2.59(.690)
	전체	461	3.20(.901)	2.52(.695)
전체	형제	211	3.25(.908)	2.47(.716)
	자매	162	3.58(.924)	2.60(.695)
	오빠-여동생	192	3.07(.999)	2.45(.720)
	누나-남동생	249	3.17(.916)	2.56(.747)
	전체	814	3.25(.950)	2.52(.724)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2원변량분석 결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에서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 구성의 주효과가 $F(3,806)=9.069$, $p<.001$ 로서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매들이 형제, 오빠-여동생, 누나-남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온정 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 오빠-여동생 및 누나-남동생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자매들이 가장 온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갈등요인에서는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주효과는 물론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 모두 4가지 형제

자매 구성에서 동일한 정도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의 차이

형제자매 구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2) $\times$ 형제자매 구성(4)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형제자매의 구성에서는 물론 청년기 진입과 함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연령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의 차이를

표 2.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생활만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연령	형제자매 구성	N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생활만족
초등학생	형제	88	3.71(.724)	3.71(.704)	4.66(.754)
	자매	82	3.79(.626)	3.65(.684)	4.74(.601)
	오빠-여동생	74	3.87(.671)	3.77(.674)	4.63(.659)
	누나-남동생	109	3.63(.723)	3.59(.749)	4.53(.832)
	전체	353	3.74(.694)	3.67(.708)	4.63(.730)
중학생	형제	123	3.36(.592)	3.27(.768)	4.10(.630)
	자매	80	3.78(.672)	3.44(.681)	4.31(.576)
	오빠-여동생	118	3.59(.726)	3.42(.793)	4.20(.599)
	누나-남동생	140	3.45(.705)	3.20(.723)	4.09(.598)
	전체	461	3.52(.690)	3.32(.751)	4.16(.607)
전체	형제(a)	211	3.51(.672)	3.45(.772)	4.33(.736)
	자매(b)	162	3.78(.647)	3.55(.688)	4.53(.625)
	오빠-여동생(c)	192	3.70(.716)	3.55(.767)	4.37(.656)
	누나-남동생(d)	249	3.53(.717)	3.37(.758)	4.29(.742)
	전체	814	3.61(.700)	3.47(.753)	4.37(.703)

규명하였다. 표 2는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생활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2원변량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연령($F(1,806)=17.784$, $p<.001$)과 형제자매의 구성($F(3,806)=6.704$, $p<.001$)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아동들이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자매의 구성에서는 Tukey 사후검증 결과 자매들이 형제와 누나-남동생쌍보다 그리고 오빠-여동생쌍이 형제보다 어머니에 대한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도 연령($F(1,806)=43.995$, $p<.001$)과 형제자매의 구성($F(3,806)=2.863$, $p<.05$)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아동들이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아버지에 대한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자매 구성에서는 Tukey 사후검증 결과 자매와 오빠-여동생쌍이 누나-남동생쌍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자매와 오빠-여동생쌍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나타내고 누나-남동생쌍은 양자에 대해 낮은 애착을 보이며 형제는 특히 어머니에 대해 낮은 애착을 나타내었다.

표 3.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 및 생활만족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Tukey 사후검증
어머니	연령	8.291	1	8.291	17.784***	
	형제자매의 구성	9.376	3	3.125	6.704***	b>a,d/c>a
	연령x형제자매의 구성	2.887	3	.962	2.064	
	오차	375.755	806	.466		
	전체	397.958	813			
아버지	연령	23.446	1	23.446	43.995***	
	형제자매의 구성	4.577	3	1.526	2.863*	b,c>d
	연령x형제자매의 구성	1.321	3	.440	.826	
	오차	429.536	806	.533		
	전체	460.931	813			
생활만족	연령	41.755	1	41.755	95.692***	
	형제자매의 구성	4.580	3	1.527	3.498*	b>a,d
	연령x형제자매의 구성	.554	3	.185	.423	
	오차	351.699	806	.436		
	전체	401.447	813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생활만족 역시 연령의 주효과($F(1,806)=95.692, p<.001$)와 형제자매의 구성의 주효과($F(3,806)=3.498, p<.05$)가 유의하였고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 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자매의 구성에서는 Tukey 사후검증 결과 자매가 형제와 누나-남동생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친구 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형제자매관계의 4가지 구성 각각에서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친구관계의 온정 및 갈등간의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형제자매의 구성은 물론 친구관계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먼저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친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2x)형제자매 구성(4)의 2원변량분석이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다. 표 4는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다.

2원변량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같이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표 4.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친구관계 온정과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연령집단	형제자매 구성	N	온정	갈등
초등학생	형제	88	3.73(.803)	2.13(.733)
	자매	82	4.18(.620)	2.00(.605)
	오빠-여동생	74	4.02(.748)	2.07(.772)
	누나-남동생	109	3.92(.750)	2.04(.636)
	전체	353	3.95(.750)	2.06(.683)
중학생	형제	123	3.76(.738)	2.26(.743)
	자매	80	4.16(.544)	2.04(.594)
	오빠-여동생	118	4.00(.639)	2.24(.688)
	누나-남동생	140	3.91(.644)	2.33(.658)
	전체	461	3.94(.666)	2.24(.684)
전체	형제(a)	211	3.75(.764)	2.21(.740)
	자매(b)	162	4.17(.582)	2.02(.598)
	오빠-여동생(c)	192	4.01(.681)	2.17(.725)
	누나-남동생(d)	249	3.91(.691)	2.20(.663)
	전체	814	3.94(.703)	2.16(.689)

표 5. 연령과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친구관계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Tukey 사후검증
친구관계 온정	연령	.004	1	.004	.009	
	형제자매의 구성	17.908	3	5.969	12.524***	a<b,c,d/b>d
	연령x형제자매의 구성	.104	3	.035	.073	
	오차	384.184	806	.477		
	전체	402.202	813			
친구관계 갈등	연령	4.711	1	4.711	10.142**	
	형제자매의 구성	3.547	3	1.182	2.545†	a, d>b
	연령x형제자매의 구성	1.670	3	.557	1.198	
	오차	374.356	806	.464		
	전체	385.894	813			

† $p=0.55$

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 구성의 주효과가 $F(3,806)=12.524$, $p<.001$ 로서 유의하였다. 사후 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매, 오빠-여동생, 누나-남동생쌍이 형제보다 친구관계에서 더 높은 온정점수를 나타내었고, 자매는 누나-남동생쌍보다 더 높은 온정 점수를 얻어 자매는 친구관계에서 가장 높은 온정점수를 그리고 형제들은 가장 낮은 온정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갈등요인에서는 연령($F(1,806)=10.142$, $p<.01$)의 주효과와 형제자매 구성의 주효과($F(3,806)=2.545$, $p=.055$)가 유의하였고 연령과 형제자매 구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 친구관계에서 더 높은 갈등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자매의 구성에서는 Tukey 사후검증 결과 형제와 누나-남동생쌍이 자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형제자매 구성 중 자매가 친구관계에서 가장 적은 갈등을 그리고 형제와 누나-

남동생쌍이 가장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매간, 형제간, 남매간에서 아동과 청소년 모두 일관성있게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친구관계의 온정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은 친구관계의 갈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간에 온정적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친구와도 온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형제자매간에 갈등적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와도 갈등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이월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4.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의 차이

표 6. 형제자매 구성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상관

			친구온정	친구갈등
형제간	아동	형제온정	.246**	-.077
		형제갈등	-.089	.328**
	청소년	형제온정	.288**	.131
		형제갈등	-.086	.204*
자매간	아동	자매온정	.361**	-.124
		자매갈등	-.186	.372**
	청소년	자매온정	.269**	-.196
		자매갈등	-.169	.388**
오빠-여동생	아동	남매온정	.263**	-.094
		남매갈등	-.113	.500**
	청소년	남매온정	.205*	-.111
		남매갈등	-.064	.332**
누나-남동생	아동	남매온정	.262**	-.080
		남매갈등	.135	.204*
	청소년	남매온정	.281**	-.144
		남매갈등	-.055	.255**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도 긍정적이고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일 때는 친구관계도 갈등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모두에서 온정은 높고 갈등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긍정적 집단으로 그리고 갈등이 높은 아동과 온정과 갈등이 모두 낮은 아동을 부정적 집단으로 구분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교 청소년들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두개의 연령집단을 분리하여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형제자매-친구관계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교 청소년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형제자매-친구관계 집단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값을 제시한다.

t검증 결과, 초등학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t(214)=8.014$, $p<.001$ 로서 긍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에서는 $t(214)=7.849$, $p<.001$ 로서 그리고 생활만족에서는 $t(214)=8.692$, $p<.001$ 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긍정적 형제자매-친구관계 집단이 부정적 형제자매-친

표 7. 연령과 형제자매-친구관계 유형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생활만족에서의 차이(괄호안은 표준편차)

연령	형제자매-친구관계			
		긍정	부정	t값
초등학생	어머니에 대한 애착	4.25(.479)	3.44(.710)	8.014***
	아버지에 대한 애착	4.20(.480)	3.42(.698)	7.849***
	생활만족	5.18(.592)	3.62(.733)	8.692***
중학생	어머니에 대한 애착	3.89(.648)	3.33(.641)	6.218***
	아버지에 대한 애착	3.69(.687)	3.11(.718)	5.683***
	생활만족	4.61(.530)	3.96(.560)	8.229***

구관계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갖고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청소년들도 각각 $t(305)=6.218$, $p<.001$, $t(305)=5.683$, $p<.001$, $t(305)=8.229$, $p<.001$ 로서 긍정적 형제자매-친구관계 집단이 부정적 형제자매-친구관계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생활만족을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 353명(남: 176명, 여: 177명)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 461명(남: 238명, 여: 223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이며 양자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

한 애착과 생활만족에서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형제자매관계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척도 및 생활만족 척도가 사용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형제, 자매, 오빠-여동생, 누나-남동생쌍의 4가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형제, 오빠-여동생, 그리고 누나-남동생쌍보다 더 온정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갈등요인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모든 형제자매의 구성에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며, 자매들이 형제와 누나-남동생 및 오빠-여동생쌍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자매와 오빠-여동생쌍이 누나-남동생쌍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매가 형제와 누나-남동생쌍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네가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보이며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과

는 대조적으로 형제와 누나-남동생쌍은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과 낮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고 누나-남동생쌍은 특히 아버지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매들은 친구관계에서 가장 높은 온정점수와 가장 낮은 갈등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형제는 가장 낮은 온정점수와 가장 높은 갈등점수를 나타내었고 누나-남동생쌍은 높은 갈등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함께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친구관계의 온정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은 친구관계의 갈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이면 친구관계도 온정적이고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이면 친구관계도 갈등적이라는 이월모델을 지지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모두 부정적인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일관성있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네가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은 가장 온정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형제, 오빠-여동생 그리고 누나-남동생쌍간에는 온정에서 차이가 없어 자매들은 서로 높은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한다는 Lee(1990)의 연구나 박혜원과 김은지(199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ee는 형제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친밀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는가 하면 박혜원과 김은지는 자매 다음으로 형제들이 온정적이라고 보고하여 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물론 동성쌍보다 이성쌍이 더 온정적이라는 Buhrmester와 Furman(1990)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가

장 온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서양의 연구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형제자매의 구성에서 차이가 없어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난다는 박혜원과 김은지(1997)의 연구나 소년을 포함하는 형제자매들이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Hetherington(1988)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로써 갈등은 자매들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의 어떤 구성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자매들은 형제와 누나-남동생 및 오빠-여동생쌍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가장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여 자매가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매 다음으로 오빠-여동생이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과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누나-남동생은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과 낮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으나 이 연구만으로는 형제자매의 구성에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고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키고 또래집단에 더 큰 관심을 보임으로써 부모와 갈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시기 특유의 다양한 발달과업들은 청소년들의 생활만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형제자매관계는 친구관계와 이월관계를 나타내어 박혜원과 김은지(1997), Stormshak, Bellanti 및 Bierman(1996) 그리고 Lockwood, Kitzmann 및 Cohen(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형제자매에게 온정적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도 온정적이고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역시 갈등적 친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은 가족내에서 학습한 행동패턴을 친구관계를 포함한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일반화시킨다는 애착이론가들이나 사회학습이론가들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더욱이 형제자매의 구성 중 형제들이 친구에 대해 가장 낮은 온정과 높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 Patterson(1986)이 제안한 형제자매-훈련자가설(sibling-trainer hypothesis)을 생각나게 하였다. 즉 남자 아동들은 일찍부터 가정내에서 서로 공격적 행동을 교환하고 서로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동일한 행동양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친구관계에서도 갈등을 조장하기 쉽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긍정적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정적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Boer, 1990; Brody, Stoneman & McCoy, 1992). 동시에 긍정적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높은 생활만족을 나타내어 형제자매 및 동성친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대학생들이 높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행복감과 자기존중감이

증가한다는 Rowe와 Kahn(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및 관련변인들 모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공유된 방법변량(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해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다른 연구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서로 이월관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갖고 그것은 또 다시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4가지 형제자매의 구성 중 자매들이 서로 온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들과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높은 애착을 갖고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제자매의 구성임이 밝혀짐으로써, 자녀의 성별구성에 따라 가족의 분위기나 가족화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87-115.
- 박혜원, 김은지 (1997). 기질이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대상으

- 로. *인간발달연구*, 4(1), 32-50.
- 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75-488.
- 이은혜, 고윤주 (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07).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출판중.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nk, S., & Kahn, M. D. (1982). *The sibling bond*. New York: Basic Books.
- Boer, F.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Leiden, The Netherlands: DSWO University of Leiden Press.
- Boer, F., & Dunn, J. (1992).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2. New York: Basic Books.
- Brody, G. H., Stoneman, Z., & McCoy, J. K. (1992). Associ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direct and differential behavior with sibling relationships: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3, 82-92.
- Buhrmester, D., & Furman, W. (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87-1398.
- Carbery, J., & Buhrmester, D. (1998). Friendship and need fulfillment during three phase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3), 393-409.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15-324.
- Dunn, J., Stocker, C., & Plomin, R. (1990). Nonshared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Correlates of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113-126.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Gauze, C., Bukowski, W. M., Aquan-Assee, J., & Sippola, L. K. (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 2201-2216.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199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Satisfac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965-971.
- Hetherington, E. M. (1988).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pp. 311-331).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Jenkins, J. (1992). Sibling relationships in disharmonious homes: Potential difficulties and protective effects. In F. Boer & J. Dunn (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pp. 125-138). Hillsdale, NJ: Erlbaum.
- Knight, G. P., & Chao, C. (1991).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social values among 8- to 12-year-old siblings, friends, and acquainta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201-211.
- Lee, T. R. (1990). Sibling relationships adulthood: Contact patterns and motiv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7-208.
- Lockwood, R. L., Kitzmann, K. M., & Cohen, R. (2001). The impact of sibling warmth and conflict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Child Study Journal*, 31, 47-69.
- McCoy, J. K., Brody, G. H., & Stoneman, Z.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sibling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family processes and youths's best friendships. *Family Relations*, 43(4), 400-408.
- McGuire, S., McHale, S., & Updegraff, K.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sibling relationship in middle childhood: Connections within and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3, 229-239.
- Paterson, J.,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atterson, G. R. (1986). The contribution of siblings to training for fighting: A microsocial analysi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Yarrow(Eds.),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pp. 235-26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s and best friendships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 151-165.
- Sroufe, A., & Fleeson, J. (1988).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 within families: Manual influence* (pp. 26-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ocker, C. M. (1994). 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siblings, friends, and mothers: Compensatory processes and links with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447-1459.
 - Stormshak, E. A., Bellanti, C. J., & Bierman, K. L. (1996).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al control in aggres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9-89.
 - Volling, B. L., Youngblade, L. M., & Belsky, J. (1997). Young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with siblings and frie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102-111.
- 1 차원고접수 : 2007.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5. 27.
최종게재결정 : 2007. 06. 01.

The Composition of Sibling, Peer Relationships,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Jang, Hwee-Soo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sibling composi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iddle school adolescents. Two way ANOVA revealed sister-sister pairs displayed more warmth than brother-brother, sister-brother and brother-sister pairs in their relationship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onflict dimensions. Also sister-sister pairs displayed more attachments to parents than brother-brother, sister-brother and brother-sister pairs and more life satisfaction than brother-brother and sister-brother pairs. Likewise sister-sister pairs displayed high warmth and low conflict but brother-brother pairs displayed low warmth and high conflict in their peer relationships. Interestingly carryover model was supported in the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Additionally, the group with positive relationships in sibling and peers displayed higher attachments to parents and higher life satisfactions than the group with negative ones.

Key words : sibling composition, sibling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ttachment, life satisfaction.